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07호
10월 1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71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추천 결의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9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추천 의뢰한 71차 총회임원 입후보자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해 공식 추천절차를 밟아 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흔들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와 옳고 그름



의 기준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따라 행하게 될 것을 당부했다.

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임원후보자를 헌법규정에 의거 전거했다.

‘말씀 농사’



조용목 목사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눅 8:11~15)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하여 ‘말씀 농사’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이 심어지지 않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토양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토양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길가처럼 단단하게 된 토양 상태입니다.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욱토가 되려면 쟁기로 갈아엎고 쟁이로 두들겨서 깨트려야 합니다. 쟁기와 쟁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질병, 파산, 실직, 배신당함, 이 쟁기와 쟁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허무감이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의 결핍도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게 되는 이유에 속합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 버린다고 하였는데 그 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비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있는 토양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만 오래가지 못해 시들어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비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만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흙이 얇게 덮인 비위와 같은 상태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려 생길 믿음은 편박이나 유희이나 환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가시 떨기가 덮인 토양 상태입니다. 가시 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는 흙이 넉넉하므로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시 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성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성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심, 육신의 일락이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썩도 트지 못하고 새에게 먹힙니다. 비위 위의 흙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 나약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양한 종류의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들입니다. 대체로 그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같이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약속,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한 성도들이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잘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명령의 말씀들은 순종해야 하고 약속의 말씀들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은 심고 난 다음에는 가꾸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비료와 같은 것이며 충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 불평의 말을 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잡초와 해충을 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수용하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써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욱토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서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정책위원회 추천 임원입후보자 서류심사...공고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9월 2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71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

의 인도로 시작되어 선관위원 오일선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강태진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8월 31일까지 임원 입후보자가 없으므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입후보자들의 입후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입후보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격심사가 완료되어 임원 입후보자를 공고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목양신문 1207호(2022년 10월 1일자) 1면에 공고된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병국 목사)는 지난 9월 20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를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9월 20일(화)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제71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김병국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부총회장 후보



김영준 목사
갈릴리 큰소망교회

총무 후보



정진균 목사
학원순복음교회

서기 후보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재무 후보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회계 후보



조선남 목사
대림벤엘교회

2022년 9월 27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강태진

울진 사랑의 집 짓기 첫 결실

총 54세대 중 4세대 입주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한교총은 지난 9월 16일(금)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서 영구주택 첫 입주식을 갖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54세대 중 4세대를 먼저 입주시켰다.

이번 첫 입주식에는 한소망교회에서 후원한 남춘자, 예장개혁교단에서 후원한 장옥순, 기아대책에서 후원한 정길상, 김분옥의 주력이 봉헌되었으며, 한교총에서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공동대표회장 김기남, 이상문 목사,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임원들과 사회봉사부 도영수 부장, 한소망교회 교인, 기아대책 지형은 이사장, 울진군기독교연합회 이승환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외부 인사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국 차관과 경북 강성조 부지사, 울진군 김재준 부군수가 참석해 축하했다.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인사를 통해 “주



님 음성을 듣고 사랑의집을 짓기로 약속했다. 산하 모든 교단들이 한마음으로 봉헌하여 54채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울진 지역이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국 차관은 “한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여 경상북도 강성조 부지사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기쁜 날이 올 수 있었다. 새집에 입주하는 네 분이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김재준 부군수는 “오늘의 입주행사를 계기로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될 것.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울진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통보수신학으로 교회 정화 및 회복 앞장

예장 보수합동, 제107회 총회 성경대로의 신앙 전파 총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보수합동(총회장 이광용 목사)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0일(수) 서울상암동 총회 본부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정통보수신학을 지켜온 보수합동 교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WCC, 각종 이단사설 등 성경을 왜곡시키는 신앙관을 타파하고, 성경대로의 신앙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을 위로 격려하고, 절제된 교회를 다시 세우며 총회 신자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을 신학으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새벽기도회 정려운



동, 성경보기 장려운동을 적극 전개기로 결의했다. 이 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영위를 위한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성경’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선교에도 적극 협력

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광용 목사를 총회장에 재추대하며 다시 한번 총회 안정 및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는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자. 보수신학으로 돌아가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합동총 제107회기 신임원은 △총회장 이광용 목사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 유자현 목사 △서기 홍순면 목사 △부서기 김영복 목사 △회의록서기 이생명 목사 △부회의록서기 모성준 목사 △회계 박건배 목사 △부회계 장규연 목사 △총무 최병철 목사 등이다.

미래목회포럼 제18-5차 포럼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교단 교육책임자에게 묻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이사장 박경배 목사) 제18-5차 포럼이 오는 10월 6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각 교단 교육책임자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조명하고 목회의 방향을 세우는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포럼에서는 설동주 목사(다음세대본부장, 과천약수교회)를 토론회 좌장으로 예장 합동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와 기감 교육국 차세대교육부장 원영인 목사, 예장

고신 교육원장 이기룡 목사, 예성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 등 각 교단별 교육책임자들을 발제자로 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언약 선교사(미래선교회 대표), 정재명 목사(실행위원)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뜻있는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문의 미래목회포럼 02-708-0191 사무총장 박병덕 목사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총회

예장정통총회, 제58차 정기총회 개최 ‘주를 위한 헌신’ 다짐



양정섭 목사

예장정통총회는 지난 9월 19일(월) 평안교회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기로 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을 위해 다시 회복하고 도약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대 목사의 사회로 부서기 민경구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사 23:18 말씀을 본분으로 ‘영적부역과 이익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도의 영적인 부역이란 하나님의 부역하는 일이다. 영적인 면에서 장사를



절하는 신자와 교회는 그 나라에 갈 때에 보상을 받게 된다. 첫째, 기도의 부역, 둘째, 봉사 의 부역, 셋째, 구제의 부역, 넷째, 헌금의 부역, 다섯째, 전도는 부역 중에 부역을 소개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부역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이영숙 목사(부서기)의 기도,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기

므로 회의를 선포했다.

회무처리 후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회장 민경구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이영준 목사, 양정은 목사가 유임되고, 상임총무 임정대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강대하 목사가 유임되고, 서기 전대식 목사는 유임되었으며 부서기 이영숙 목사가 선출되고,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가 유임되고, 부회의록서기 김재순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욱 목사, 이순례 목사가 유임되었다.

신 안건토의에 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회의록 채택은 차후 50차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기타 안건은 접수되는 대로 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며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권순웅 총회장 오정호 부총회장 당선

합동 제107회 총회 “‘살롬·부흥’ 전도, 회복과 발전 위해 헌신”

예장합동 제107회 총회가 지난 9월 19일(월) 주다신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일정으로 14,937명의 총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권순웅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후보자 자격 시비로 인해 교단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가 807표를 얻어 693표에 그친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부서기는 김한욱 목사(세안양교회)가, 부회계는 김화중 장로(북일교회)가 당선되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단독 후보들을 일괄 선정했고, 배광식 총회장이 권순웅 목사가 107회 총회장에 당선되었음을 공표했다.

아울러 장로부총회장 임영식 장로(아전제일교회), 서기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 회록서기 한기영 목사(전주은강교회), 회계



지동빈 장로(강변교회), 부회록서기 전승덕 목사(철학교회)가 단독후보로 일찍이 당선

을 확정했다. 107회기를 이끌어갈 권순웅 총회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취임사를 시작, “미래를 준비하는 총회장, 다음세대를 살리는 총회장,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투명한 리더십으로 섬기겠으며, 임원 및 동역자들과 형제의 연합 정신으로 살롬·부흥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허은 목사의 인도로 노병선 장로의 기도, 이종철 목사의 성경봉독, 배광식 목사의 설교, 소강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성서공회, 라오스 성경 기증예식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후원으로 1,565부 보낸다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오현)는 지난 9월 15일 세상의소금 염산교회(김종익 목사)의 후원으로 라오스에 라오어 성경 1,56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중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홉이 예사에게 준비한 선물을 받아 주기를 청한 것처럼 간곡히 청하고 감사하

는,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갖기를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받았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기쁨을 전했다.

라오스성서공회 파이리나 사하씨와 조이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성경의 수요가 급증했음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후원해 준 세

상의소금 염산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라오스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경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하고 있습니다. 선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라오스에서 성경 자체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하신 성경을 통해 라오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라오어 성경을 후원해 주신 세상의소금 염산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라며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이번엔 성경을 후원하는 라오스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현지인 지도자들은 매우 부족하고, 오지 지역으로 갈수록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통중앙 총회직영신학 2학기 입학 및 개강예배

원장 이건호 목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강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통중앙) 총회직영신학(대학원 원장 이건호 박사)은 9월 19일(월) 오후 1시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15길 15, 소제 중앙총회신학 강당에서 신입생, 교수, 임원들과 함께 2022학년도 2학기 입학 및 개강예배를 드렸다.

신학생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맡겨진 사

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총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교학과장 송애호 박사의 사회로 교수 김대섭 박사가 대표기도하고, 교수 이정식 박사가 성경 마태복음 18장 18-20절을 봉독하고, 교수 이건호 박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첫째로 선교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이다. 둘째로, 제자 교육은 주님의 명령이다. 셋째로, 임마누엘 정신의 수행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증거했다.

이어 교수 한규식 목사는 환영사에서 “임마누엘 정신인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이루어진 예장총회(정통중앙)와 총회직영신학의 주인공이 된 것과 교육목표인 재학 중의 실력충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총회직영신학의 주인공이 된 것과 생활교훈인 졸업 후 교회를 설립하는 자립정신과 환경을 극복하며 섬기는 봉사정신을 기우는 본 신학의 복된 주인공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고, 송애호 교학과장의 교수 소개 및 학사공고 후에 대학원장 이건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조원재 목사
· 교단 전임 재무

‘시종여일’이란 말이 있다. 처음이나 나중에 한결같아서 변(變)할 없음.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처음시작과 같이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무후무하게 받아 누렸던 솔로몬, 그는 부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초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시작하였지만 시종여일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세속적 부귀영화에 젖어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전도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무슨 수고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고”(전1:2-3)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자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 아내로 삼은 밋새바의 소생으로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왕이 되기에는 어려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장자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된 것은 솔로

시종여일(始終如一)

왕상 3:1~15

몬이 날 때부터 그를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다.(삼하 13:24,25)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본격적인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시자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왕상 3:7~9)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의 겸손한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왕상 3:11~13) 그리고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는 ‘넓은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 4:29-30)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점점 명성이 높아지자, 초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고, 수많은 이방 여자와들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허무한 인생고백을 남겼으며, 이

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왕상 11:1~13)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되,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이 쌓은 업적, 명예, 자랑, 권세, 건강, 부, 행복 등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신앙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라고 하였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는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御命)이요 신명(神命)이기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우리의 귀를 통해 전달되지만, 그것은 곧 마음의 변화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최종 목표는 손과 발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도(正道)를 따르는 것이요, 겸손하고 바른 삶의 비결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엔 교만에 이르러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음이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모든 통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철저한 신본주의 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앞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할리라”(왕상 2:1~3)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떠한 통치적 능력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낀 다윗이었기에 본인의 사직에 대한 기념도, 영토 확장 같은 군사적인 과업도, 경제적인 번영의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여호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신앙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명성이 높아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기 위해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멀리오자 초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분수를 저버리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그 소중한 유언조차 저버리는 불효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인생말년이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우침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만사가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잘되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늘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스스로 낮아지는 이들을 더욱더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사랑함으로부터도 사랑받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겸손함으로 시종여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솔로몬의 허무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하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 대법원장 김명수-우리법연구회 출신) 예규(例規)를 개정해, 성별 정정을 함께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의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진절(진절)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무렵다.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쭙잖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 정

풀라신학교 신임총장에 고틀리



미국 풀라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는 신임 총장으로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를 임명했다고 지난 20일(화)

밝혔다. 고틀리 박사는 풀라신학교 첫 흑인 총장이다. 듀크대 신학대학원 부학장인 그는 신교학 교수이자 흑인교회 연구소 원장이다.

진용식 목사 동방번개 경교



진용식 목사는 최근 세미나에서 동방번개가 신천지처럼 기성교회에 침투하면서 정통교회 성도를 미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목사에 따르면 동방번개는 “성경은 시대가 지난 책이다. 성경을 맹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며 성경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이끈다.

‘이자리목회자상’ 김종양 선교사



이 자리(1882~1961)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8회 ‘이자리목회자상’에 김종양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선교사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2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목) 전북 김제 금산교회(김종원 목사) 기억(7)자 한울 예배당에서 100년 전 모습을 재현하는 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김 선교사는 에스와티니 기독교의대를 설립하고 교목으로 섬기고 있다.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박근재 목사



미국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회가 지난 20일(현지 시간) 뉴저지 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를 선출했다. 또 목사 부회장은 김동권 목사(뉴저지새사람교회), 평신도부회장은 전경명 장로(필그림신교회)가 당선됐다. 또 평신도부회장은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직전 회계였던 전경명 장로를 선출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이 무질서와 위헌으로 가면 안 된다

최근에 아동, 학부모, 교육, 보건, 생명, 인권에 관한 40여 개 시민 단체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원 합의회 회부 결정을 당사 철회하라’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막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는데, 아무리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이라도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지 노선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11년 까지도 대법원의 허용 불허판결 요지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지금의 죄과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는 과거의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곧 결론이 날 것 같아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때문이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베로써 역할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될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

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하려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 왔던 것이다.

사실 2006년의 대법원(당시 대법원장이 유호연)의 이런 결정도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하여 한법에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婚姻)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자 함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性)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 합에 대해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이 이번

에는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아동의 복리와 심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선’마저도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 문제이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자 함은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해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방한다

소금 언약

대하 13:5



이훈 목사
· 충남바람교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분열된 이후, 첫 번째 유다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던 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는데, 두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두 배나 많았죠.

그러나 아비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복분 말씀처럼, 예브라임의 산 중, 스메라임 산에서 외친 것입니다.

남유다인 아비야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 중 50만 대군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죠.

아비야는 열왕기상에 보면, 악한 왕으로서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역대기 하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 귀환한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거의 다 삭제해, 유대인들에게 용기와 역사의식을 주려고 쓴 책입니다.

조금 전 본문 말씀 중,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었지요? 그런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확약의 통보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셔서,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 후로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찌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나오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고 나옵니다.

이주 옛날부터 소금은, 귀하고 드문 것으로, 모든 제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 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언제나 한결같은 뜻을 지니, 소금을 뿌린 재물을 바치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뀌 말하면 결코 아닐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겠다는 소금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은 더 깊게 들어가면, 다윗의 자손인,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소금 언약을 가져야 합니다.

제는 17살 때,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는 언약에 힘입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

니다. 옛날엔 패배자의 기분을 매일 맛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함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월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길 기도하는 기도의 끈이 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한 부모 셀러 응원

‘MOM’s FESTA 플리마켓’ 통해 한 부모 자립도와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가 지난 9월 24일(토)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MOM’s FESTA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롯데GRS, 롯데지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이 후원한 이번 플리마켓은 롯데몰 김포공항점 썬큰광장에서 11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였으며, 한부모 셀러 27명, 이웃셀러 20명이 참여하여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수제품을 판매했다.

오프닝에 참석한 홀트아동복지회 김성은 흥

보대사가 스페셜 셀러로 참여, 한부모 부스에서 함께 상품을 판매하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부모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미경 홍보대사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와 함께 ‘자존감 있는 엄마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진술한 이야기를 전하여 감동을 자아냈다. 또 한 15년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하고 있는 선홍보대사는 “지금도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많은 한부모 셀러를 응원,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월례회 갖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9월 8일(목)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한석현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진영훈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토크 13:1~5 말씀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제목의 설교,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



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사회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10월에 있을 교단 전국 총회 참석 확인 및 여흥 하기 수양회를 9월 말에 가질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아름다운 수양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들은 서면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조은주 목사)는 지난 9월 20일(화) 풍암순복음교회(담임 김해상 목사)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9월 월례회 및 목회자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영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배영래 목사의 대표기도와 지방회장 조은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왕하 4:17-25 말씀을 본문의 '죽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고 전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총회, 그리고 지방회와 지교회, 연약한 성도를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고, 재무·회계 김정순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정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조은주 목사의 진



행으로 서기목사의 회원점령과 배영래 목사의 서기보고, 김정순 목사의 재무·회계보고를 통해 회원들의 인준을 받고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모든 회사를 마쳤다.

이후 풍암순복음교회(담임 김해상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기 위해 양산동 풍천장이 식당으로 이동해 풍성한 대접으로 모든 회원들의 기쁨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식사 후에는 직전 회장인 조길수 목사의 전원주택(진원면 남매마을)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터를 잡게 하신 은혜의 간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합심기도하고 집안 곳곳을 돌아보면서 그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아올 때는 준비한 풍성한 선물을 한아름씩 들고 기쁨으로 각자 지역지로 돌아갔다.

‘성경적 창조질서 회복 세미나’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성경적 창조질서 회복’ 한 뜻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상임총무 김건수 목사)에서는 성경적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반성적 법안을 마련하는데 한바탕 한바탕으로 힘을 모으고자 김해제 국회의원을 감사

로 오는 10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제주영락교회에서 ‘성경적 창조질서 회복 세미나’를 갖는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표현과 자유에 관

한 한발기지와 충돌의 소지가 있고, 성경적 창조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복음전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한국교회총연합회(한총)를 비롯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 전국 각 기독교연합 기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에 있다.

이번에 감사로 선정된 김해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서울 사랑의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헌법과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다.



“우리가 지금 벤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9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순복음광양교회(담임 유영근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영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창상 6장 7~16 말씀을 본문의 '우리가 지금 벤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법계를 메고 회복을 선포하는 사명자임을 선포했다. 특히 사명자는 사람의 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로만 나아가야 하며 사명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끝까지 헌



신하는 전라지방회의 교회들이 되었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님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최남성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71차 정기총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인건을 결의하고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눔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눈물’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9월 24일(토) 오전 11시 아산시에 소재한 엘사랑교회(담임 정진탁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탁 목사(엘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종환 목사(양

문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 봉독에 이어 직전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가 시 126:1-6 말씀을 본문의 '기쁨의 단을 거두는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픔의 눈물, 피 흘림의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했다.

이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서 사회자의 헌금 기도과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온양은혜와진리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안홍규 목사(한사랑교회)의 기도로 2부 월례회를 가졌다.

총회 참석과 지방회 목사, 사모, 성도의 건강과 각 교회의 문제를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월례회를 마치고,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온양은혜와진리교회)가 준비한 오찬 장소로 이동해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월례회 갖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9월 13일(화) 창대교회(박서현 전도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부흥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배

길선 목사(천석샘물교회)의 기도와 박서현 전도사의 성경봉독 후, 사모중앙단 찬양에 이어 증경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5:1-8 말씀을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열매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

도인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께만 꼭 붙어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되며, 치료가 임하고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태풍과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더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개교회를 위해 합심기도 후에 오송희 목사(잠빛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박흥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장의 인도로 9월 월례회를 통해 몇 가지 인건을 처리하면서 은혜롭게 월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후에 창대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한 뒤 인근 별빛나루 카페에서 교제를 나눔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강인덕 목사)는 지난 9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한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문찬우 목사의 대표기도, 한승수 목사의 잠 21:1~4 말씀을 본문의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의 설교, 우광덕 목사의 헌금기도, 이경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강인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총무·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



원 점령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회계 박태균 목사의 재무·회계 보고 후 기타 인건

에 대해 토의하고, 강인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력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LT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상으로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인이 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나라사랑운동 실천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교회가 앞장 차별금지법, 인권조례법안, 주민자치법 폐지해야

제9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수호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2022년 제9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9월 22일(목) 오전 7시 배방감리교회(담임 구자범 목사)에서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제지와 주민자치법 등 약법제정 저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본부장 김수홍 목사(시온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해서 장로의 기도, 차추병 목사의 성경봉독, 상임

회장 황기식 목사(동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시 146:3-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정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설교 후 부회장 최순식 목사의 헌금기도, 부회장 구자범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

쳤다.

관사로 이어진 2부 보고회는 아산포럼 대표 김원진 목사의 사회,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약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고 헌정부를 도와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주민자치법 제정 저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안정적인 국가안보와 정부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낼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사무총장 이영구 목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자문위원 박희식 박사는 교육특강을 통해 교육계의 오랜 병폐를 개혁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특강으로는 고보 김소윤 감독이 현



시국의 견해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정권 극심한 좌편향으로 휘어진 정국을 바로잡는데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3부 기도회 순서는 실무회장 조이

철 목사의 인도로 1) 민족복음화를 위해 상임회장 홍성용 목사, 2) 나라와 민족과 이명수 의원을 위해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 3) 아산 시립전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해 상임회장

온재현 목사, 4)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 5)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상임회장 김병완 목사 순으로 주제를 기도시간을 가졌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전형료: 20,000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복양양령.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aster of Ministry)	3학자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인로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석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갈락 : 홍화씨의 2배, 멜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신청한 이혼·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년에 낳은 자녀(당시 7세)가 있는데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환자가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결정의 요지였다. 성별 정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도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용 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출생시의 성을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부여해 왔던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제도도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흔들리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2006년 및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과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전환 수술로 외부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 결정에 반하여 외부 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나오더니, 2020년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종전의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종 의학적 서류 제출 규정을 필수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본래 생물학적 성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다.

외부 성기의 형성을 성별 정정의 심사사항에서 배제한 2020년 개정 대법원 예규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 출생시의 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관계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남녀 성별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헌법질서에 위반된다. 요컨대,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바,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서구에서는 성전환수술 요건 없는 성별 정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남성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 해체시킨다.

이처럼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두 가지 사항인 기혼 여부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만이 성별정정에 관한 심사요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성별 정정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 만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게 된다면, 성별 정정에 관한 최소한의 심사요건마저 없어져 국민 누구나 출생시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지게 된다.

법적 성별의 변경, 즉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명시적 선언이다. 헌법상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한 혼인 및 자녀 보호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인간적 책무이다.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 전환 문제는 단순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제도의 문제이고 혼인제도의 문제이다.

대법원이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전환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성장 과정은 물론 성인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2. 9. 14.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6회 개인전 감사예배, 수익금은 선교비로

임윤임 화백, 신앙과 일상을 한 폭의 그림으로 녹여내

예장 합동개척 시온성교회 임윤임 목사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지난 9월 14일(수)부터 21일(수)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38번지 갤러리 한중문화관 역사전시관 1층 우국문화홀에서 열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바탕으로 한 작품과 신앙과 일상을 기도하면서 한 점, 한 점 녹여낸 작품이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임윤임 목사는 여섯 번째 개인전의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9월 15일(목) 오후 3시 제6회 개인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예장 합동개척 총무 이성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장 합동개척 총회장 남윤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남 목사는 독 8:1-3 말씀을 본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제6회 임윤임 목사의 개인전을 축하하고 더 나누고, 더 배울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조성민 박사와 이기민 박사의 찬사, 김정호 전도사의 축가, 임윤임 목사의 인사 및 내빈소개, 남윤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임승자 목사의 인도로 테이프커팅 케익 커팅 순으로 예배와 축하의 순서를 모두 마쳤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으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위시하여 유대광야를 비웃 폭탄, 다매색분, 예루살렘의 회복, 바울이 들른 기모섬의 무너진 풍자유적, 소아시아 일곱교회(터키), 이스라엘 성지수도원 유대사막, 요단나루, 소망의 빛, 해바라기, 복사꽃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임윤임 화백 특유의 화려



하면서도 섬세하고 밝으며 붓 터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회를 거듭하면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임윤임 화백은 2015년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 종합대상(국회의장상)을, 2019년에는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임 화백은 2008년부터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회를 거듭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되어진다.

032-760-7861, 010-8709-6881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논평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해방,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지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대한 율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여 이번 77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행한 연설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데 의의가 크다. 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규정이 독립과 건국의 구분이 모호하고 민주독립군이었던가 해방 후 북한 정부의 요인이 되어 6.25 남침에 중요 역할을 한 김원봉을 국군 창립의 모태로 간주하여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대조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살롱1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며 그의 광복절 기념사를 분석하면서 다음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3분 여에 걸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다. 광복절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가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경축식 주제를 소개하며 "과거의 의미(뜻)는 자유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뤄 함께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기 국가 정체성에서 자유를 빼려는 헌법 개정 시도까지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새 정부가 자유를 강조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2. 1919년 3.1 운동의 임시정부와 1948년 건국일의 정부를 명확히 분리하였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독립운동 규정은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했던 과거 우파 진영 일각의 역사관을 넘어서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추구이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 세력에 맞선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과 자유민주 세계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과정도 독립운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도 피력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가 아니라란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

국은 독립운동사의 적통(嫡統)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 통일 국가 건설'을 완전한 독립으로 염두에 둔 언급이란 해석이다.

3.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권과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분리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외치면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 위한 것"이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대한 율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3.1 운동의 적통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의 정체성은 북한 전체주의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적통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문 대통령의 언급과는 확연히 다른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명료히 규정해주고 있다.

4. 산업화 과정 및 민주화과정을 독립

운동으로 규정해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으로 보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단순히 일제 압제에서의 해방을 넘어서서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은)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어진 산업화·민주화 과정도 독립운동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는 독립운동을 일제 강점과 압제에서 독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 독립,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사회적 성숙과정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5.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관과는 대조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3.1운동에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왔었고,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나중에 6.25 전쟁을 이끈 김원봉을 국군의 원조라고 하여 자유민주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통일혁명당을 창립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

하러다 체포되어 20년 형을 살다가 전향한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중한다고 하여 많은 자유 지식인의 비난과 우려를 받았다.

문재인은 개인으로서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관을 구별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고 인민으로 개정하려다 많은 자유 지식인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독재자적 시도요 권력 남용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6.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세계시민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세계시민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면서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자유와 평화가 일맥상통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7.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어섰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국민의 부름을 받아 직선(直選)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지지자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으며 국정경험도 미흡하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여당 국민의 힘이 내홍(內訌)으로 대통령의 국정 장악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자신도 아직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익숙지 못하여, 인사 난맥상과 국정 운영에 오만한 태도를 보인 실수로 인하여 취임 백일도 안되어 지지율 24%까지 곤두박질하다가 최근에 30%를 넘어 다시 지지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도 그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며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것으로 남은 4년 8개월 임기 동안 이룩해 주길 바란다. 그가 임기 동안 사심(私心)을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고 국민통합과 부국강병의 선진 자유민주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같이 '국민만 보고,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만을 따라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19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아신대학교, 입학 40주년, 30주년 동문 홈커밍데이 성료

아신대학교가 입학 40주년, 30주년 동문들을 초청한 2022년 대학 홈커밍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신대는 지난 9월 6일(화) 대학 입학 40주년이 되는 82학번 동문들과 30주년이 되는 92학번 동문들을 초청하여 양평캠퍼스 다락방(소강당), Acacia 등 교내에서 다양한 홈커밍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광웅 원로교수의 설교로 진행된 감사예배, 학교 다큐멘터리 '섬리' 감상, 교내투어 및 기념사진 촬영, 동문들의 재학 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마태는 말이야', 민찬 등의 프로그램을 학사일정을 모티브로 하여 입학식, 중간고사, 체육대회, 기말고사, 졸업식의 명칭으로 진행했다.

아신대학교 42대 하민 총학생회는 재학생들과 함께 동문 선배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섬김으로 행사를 진행

하였고 참석한 동문들과 김윤동 총동문회장들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들은 20대 초반의 학적부 사진으로 만든 참석자 학생증을 보며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전하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오랜만에 동문들, 교수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82학번, 92학번 동문들은 직접 순서를 담당하여 은퇴한 유광웅 원로교수의 설교말씀과 함께 감사예배 드렸고 대학 발전기금을 모아 학교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입학 40주년이 되는 대학 최초 학번 82학번 동문들과 30주년 92학번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문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 아신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죽음 내몰리는 北 주민들... 행동에 나서야”

26일 북한자유주간 ‘복음통일 세미나’서 역설

수잔 솔티 대표가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월) 저녁 십년클럽 주최로 에스더기도센터에서 열린 복음통일 세미나에서 북한 자유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솔티 대표는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40절을 언급한 뒤 “난민, 기근에 고통받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이 거대한 정치범수용소 같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고 했다.

솔티 대표는 구약성경 잠언 24장 11~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미움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로 보응하시리라”는 말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난민들 모두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솔티 대표는 지난해 ‘북한 난민 구하기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시역을 펼쳐며 자신이 연게 된 신앙적 깨달음을 나누기도 했다.

솔티 대표는 “북한 난민을 위한 활동과 지지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궁극증이 생겼다. 내가 하는 일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다”며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여운 소녀가 달려오더니 나를 안아주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생명나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장기기증의 달 및 생명나눔 주간 신장기증인 및 이식인 99.9km 걷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월 생명나눔 주기를 맞아 15일, 16일 이틀간 타인을 위해 생존 시에 신장을 기증한 이들과 이들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이식인이 한테 모여 99.9km 릴레이 걷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이틀간, 죽도정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해피랑길 41~49코스를 이어 걸은 신장기증인과 이식인의 표정이 밝았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걷는다는 감격이 내리쬐는 가을볕과 세찬 바닷바람도 이겨냈다. 이날 김동조 목사를 만난 기증인 이영천 집사 역시 반가운 마음에 그를 안으며 “하나님을 믿는 분께 기증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 신장 하나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다.”라며 “건강한 목사님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밖에도 신기한 동행에는 신장을 기증한 목회자 8명도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들 중 이태조, 최정식, 표세철 목사는 신장기증에 이어 얼굴도, 이태조 모르는 타인에게 간까지 기증하며 두 번의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 하나를 기증하며 장기기증운동을 시작한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장기기증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감사하다.”라며 “신장기증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증인들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에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장기이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장기기증 활성화가 시급하기에 새생명나눔회(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하거나

식반은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은 이번 릴레이 걷기를 통해 생존 시 장기기증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에 44명의 생존 시 신장기증인들과 7명의 신장이식인들이 동행안을 따라 99.9km를 걷는 릴레이 걷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1박 2일 걷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신장기증인이 60~70대이고, 80대 고령의 기증인도 다수 참석해 오래보다 앞선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 시 장기기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훌륭한 군사 12기

10/27 THUR ~ 29 SAT

장소 | **혈문산 기도의 집** (경기남지방회)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178-8)

문의 | **010-5145-3816**
(인터뷰 후 등록가능)

회비 |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ENHAKKORE MINISTRY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 비금도 천일염판매

20kg 40,000원
(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하나님의 치유능력 체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노매실구세군교회에 박영수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이날 박영수 목사는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치유사역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120분도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손길이지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이롭고 감격적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박영수 목사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과거 전도사 시절 치유사역에 집중하였다면, 목사 안수 후에는 주로 말씀사역에 집중하던 차에 최근 들어 주의 감동과 지시를 통해 치유사역에 힘쓰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의 선포와 동시에 저희 영분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말씀의 선포와 동시에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고질병인 허리통증으로 힘들어 하던 성도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단 재무는 3

년전부터 앓고 있던 귀의 이명과 통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도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대에도 주님의 말씀은 실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감 있게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 정말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확신에 찬 고백을 전합니다.

노매실구세군교회
담임사관 김효영 목사, 채미숙 사관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믿음으로 새날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한국교회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다

교회의 개혁이란 제도나 운영체제나 교리의 개혁이 아니다. 그 같은 개혁은 1517년을 전후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제 사람의 개혁이다. '새로운 피조물 된 인사들'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속 4:6).

교회는 목회자와 불기분리의 관계이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곧 교회의 모습으로 인식한다. 목회자의 모습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인식한다. 현대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삶의 열매로 증거하라고 요구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고보서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먼저 발견했다는 헨드릭스의 진술은 교리보다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극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역사적 예는 한국교회 개혁의 해답을 주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3가지로 소개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다. 하늘나라에 절대기치를 두고 살아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대로 믿고 실

천하는 삶이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 예로 박해 당시 하나님의 나라 지하도시인 카타콤(Catcomb)에서 소요되는 식량은 땅 위에서 제공받아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나 지원하는 이들이 항상 대기상태였다고 전한다. 목숨 건 형제사랑의 실천모습이다.

세 번째는 삶의 성결이다. 구별된 삶이다. 당시 로마의 남녀 공용목욕탕이 일반적이었고 군대의 동성애가 보편적이었다는 것은 도덕적 타락, 성적분란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막상 로마 권력자들은 자기 아들들의 배우자로 성적으로 분란한 여성들을 원치 않았다. 당연히 한속한 여성들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권력자의 안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 콘스탄티누스(Costantinus)의 어머니인 헬레나 황후가 기독교인이었으며, 그 이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몰라주면 어떠니?

이른 아침
주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좀 무시당하면 어떠니...
비웃음의 눈짓 좀 받으면 어떠니...
네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된거지...
네가 비웃음의 눈짓 하지 않았고
억울케 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된거지...”

“사람들은 내게
침을 뱉으며 조롱 했었지...
사람들은 내게
채찍으로 때리며 가시관을 씌우며 억울케 하였지...
사람들은 내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해 보라며
참담한 말을 서슴지 않았지...”

“네가 나의 제자라면
무시 당할때도 나를 바라보아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비웃음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아야지
네가 나를 만날 것을 소망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나를 바라보아야지”

나는너를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너 알고 있지?
나는 너의 억울함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자라는 것
너 알고 있지?
나도 너의 눈물 속에서 함께 울고 있음을 알고 있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나의 언약을너 알고 있지?
말씀을 네게 주어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너 알고 있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른 아침성령께서 내 마음을 노크하신다.
나는이 위로를 놓치고 살지 않아 단숨에 달려와 적어놓는다.

사설

‘수리남’ 반기독교 작품, 종교 가치 존중해야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 드라마는 남미의 수리남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인데, 그 내용에 있어 반기독교적 정서를 물씬 담고 있다.

이들러면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목사’로 표현하고, 그가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성찬식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첨가하여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현금을 갈취한다든지, 여신도들에게 마약을 삼켜 운반책으로 이용한다든지, 겉으로는 목사(?)인데 돈이라면 마약팔매, 살인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밀매업을 했던 3500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마약밀매업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목사’로 둔갑시킨단 말인가? 이것은 종교의 엑스터시와 마약의 중독을 매치시켜, 특별이 수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악행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반기독교 행위로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물과 사건을 내용으로

드라마를 구성하여 방송이 나갈 때, 기독교와 성직자, 그리고 해외 선교가 받을 피해는 치명적이다. 종교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종교를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기독교의 성직자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신(神)에 대한 모독이며, 종교인과 국민들에 대한 뻔뻔한 범죄행위이다.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선동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교묘하여, 어떤 범죄행위보다 질이 나쁜 것이다. 자신들의 상대적 가치로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조롱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공동체는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금도(禁戔)를 갖게 될 때, 밝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도(禁戔)를 갖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화 예술도 그 효용성과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젤렌스키의 리더십

불후의 명작 ‘전쟁론’을 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전쟁론’에서 말하기를 ‘전쟁은 안개와 같다’고 했다. 길고 짧은 것은대보아야 안다는 뜻이다. 전쟁이란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도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도 관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젤렌스키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탄약이라며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총리, 대통령교본 군수부처가 모두 여기 있다. 우리는 국가와 독립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자 전쟁초기에 자리를 버리고 달아났던 관리들도 대통령의 항전 의지를 확신하고 속속 복귀를 한 것이다.

러시아의 총격적인 패배가 여가저가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승전을 하고있는 젤렌스키는 소설 미디어에연설문을 올렸다. 러시아 너희가 가스 빛 물, 음식으로 협박하면 그것 알아들었다. 추위 어둠, 갈증 배고픔이 너희에게 굴종하는 것보다 견딜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가스 빛 물, 음식도 되찾을 것이다. 그것도 너희의 도움없이... 이 연설문을 영국의 더 타임스는 우리 시대

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극찬을 했다. 시작이면서도 단호한 정서가 담겨수십 년간 읽힐 명문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세계의 영웅을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유일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하면서 지도자가 무지하지 않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며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들이 누구인가. 젊은 소대기리라고 조롱하고 비하해도 짹소리도 못하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는 집단 아니었던가.

중국에 국민 초청으로 가서 11개 중에 27만 대접받고 97개를 흔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높은 산봉우리 작은 산이라며 중국에 노골적으로 굴종 외교를 했던 일을 벌여 잊었는지, 영국 정례식 참사라는니, 미국 외교 일본외교 참사라는니.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트집 잡고 흔계질에 이끌난 사람들이 야당이 됐다고 대통령 흡집 내고 트집 잡기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정권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영웅을 초보라고 깔본 세계 유일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직도 많은 모양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1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1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총회일자 : 2022년 10월 17일(월)
- 등 록 : 10월 17일(월) 오전 11시부터
- 개회예배 : 10월 17일(월) 오후 1시
- 사무총회 :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031-443-3731~2
-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2년 9월 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 재 영

● 정기총회 버스운행 ●

●안양역 1차 출발: 오전 10시
차량번호 77무 7183 (45인승)

●안양역 2차 출발: 오전 11시
차량번호 75도 9034 (25인승)